

버려진 절터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본다

《한국 옛 사찰의 남겨진 풍경들》 펴낸 이영수씨

경주 보문사지와 망덕사지의 주춧돌들은 논두렁과 한몸이 돼 있다. 석등의 옥개석은 논 가운데 묻혀 추수가 끝난 뒤라야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황복사지 삼층석탑은 동네 어귀 길가에 망부석처럼 서 있다. 머리도 없는 귀부는 길가에 버려져 거북의 등껍질 무늬만으로 그것이 귀부라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사진작가 이영수씨(37)의 사진집 《한국 옛 사찰의 남겨진 풍경들》(눈빛)은 제목처럼 사라진 절들의 '겨우 남겨진' 유적들을 담아낸다. 그러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씨가 제목에서 힘을 싣는 것이 '남겨진' 쪽이 아니라 '풍경들'임을 알 수 있다. 사진에서 유적들은 '남겨진 흔적'이 아니라 이미 풍경의 일부 혹은 삶의 일부로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진 안에서 유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저 유적이 속한 풍경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한다. 대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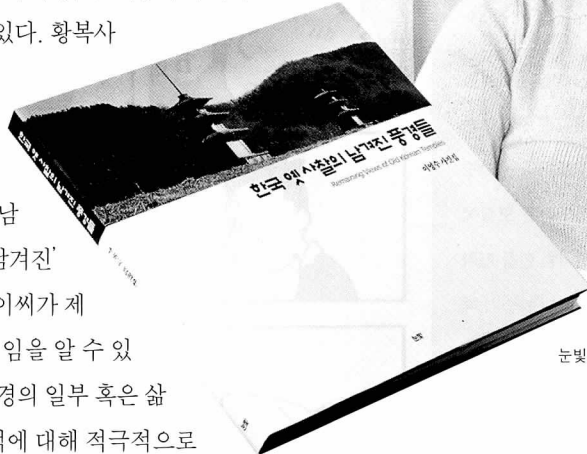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한국의 폐사》(이재준, 한국문화사)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절터 발굴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때부터 절터와 절터에서 발굴된 유물들에 관심을 쏟게 됐죠.”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면서 지혜를 얻듯이 절터의 유적들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비록 부서지고 훼손됐지만, 그것들이 삶의 경험과 지혜로 삶을 초월한 노인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가 절터를 기록하기 시작한 건 1997년부터다. 당시만 해도 절터를 집중적으로 찍은 사진가는 아무도 없었다. 절터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는 터라 혼자서 역사를 거슬러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비록 훼손됐을망정 당간지주, 탑, 귀부, 주춧돌 등이 남아 있는 절터를 찾는 작업은 긴 싸움 같은 일이었다.

그가 유적을 보는 관점은 분명 역사가와는 다르다. 역사가는 제약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유적과 유적을 둘러싼 역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진작가인 그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자신의 상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유적을 독립적으로 보여주되 모두 보여주지는 않는다. 주관적인 상상 안에 포착된 유적만 보여줄 뿐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이 기록이면서도 역사와 다른 것은 그 때문이다. 또한 그의 기록, 즉 '보는 작업'은 우리 삶의 맥락과 닿아 있다.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고 늙어가면서 지혜를 얻듯이 절터의 유적들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비록 부서지고 훼손됐지만, 그것들이 삶의 경험과 지혜로 삶을



이영수씨

눈빛/A4변형/146면/30,000원

초월한 노인들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삶 전체가 아름다하다고 느끼는 것도 그런 것들 때문이죠.”

이 사진집은 그러므로 단순히 유적을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그의 사진들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다. 시간에 의해 훼손되고 버려진 것들은 그 흔적들에서 슬픔이 배어나오기 마련이지만, 그의 사진은 그저 고요하다. 그 고요함에는 파노라마 형식도 한 몫 거둔다. 파노라마 프레임으로 담아낸 그 풍경 안에는 절터 유적뿐 아니라 우리 산하의 부드러운 곡선도 흘러간다. 그리고 그 곡선은 우리 민족, 우리네 삶과도 참 닮았다.

그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주제를 선택해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사진을 찍는 일은 삶의 사소한 것들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일이다. 그가 이 사진집에서 논두렁과 한몸이 된 초석 따위를 담아낸 것도 그런 이유다.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겸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입니다. 절터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할 때만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가 사는 곳이 대구기 때문에 이 사진집에 실린 절터 대부분은 경북에 있는 곳들이다. 이제 그의 카메라는 경기도를 비롯한 중부지방과 강원도의 절터들을 돌아다닐 예정이다란다. —김장근기자

칸 속에 녹아든 우리 이웃들의 알콩달콩한 사연들

《또디—또디 동네 사람들》 펴낸 정연식씨

코밑과 턱밑에 듬성듬성 자라난 검은 수염. 등산모를 눌러쓰고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지른 채 성큼성큼 걸어오는 사람이 보인다. 그 순간 ‘아, 저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온다. 굳이 빨테 안경 너머로 장난기 많은 눈빛을 읽어내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영락없는 만화가였다. 그가 바로 ‘또디’라는 캐릭터를 통해 현대인들의 자잘한 일상을 네모칸 속에 담아온 만화가 정연식씨(36)다. 만화가 정연식보다 ‘또디’ 아빠로 더 유명한 그가 그동안 신문에 연재했던 만화 <또디>를 단행본으로 묶어 《또디—또디 동네 사람들》(문학과지성사)을 펴냈다.

“또디는 바보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 ‘또다리’에서 따왔죠. 본래 강아지 이름이었는데 제 만화 속에선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 하지만 늘 실속 없이 실수만 거듭하는, 조금은 바보스러운 사람을 대변합니다. 저 역시 또디일 수밖에 없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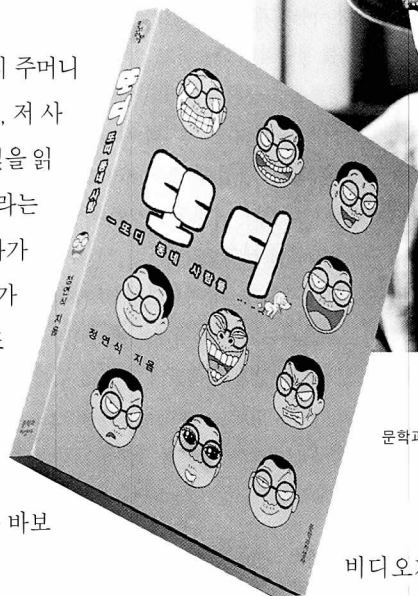
그래서일까, 그의 만화 속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친근한 캐릭터들이 넘쳐난다. 정씨의 현재 모습을 투사한 무명만화가 ‘이팔육’, 우리 시대 평범한 30대 직장인들의 자화상인 ‘천진한’, ‘주먹세계’를 대변하는, 그러나 첫눈을 기다리며 손톱 끝의 봉숭아 꽃물을 바라보는 미워할 수 없는 건달 ‘정육점’, 화이트데이

“또디는 바보스러운 사람을 뜻하는 경상도 사투리 ‘또다리’에서 따왔죠. 본래 강아지 이름이었는데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 하지만 늘 실속 없이 실수만 거듭하는, 조금은 바보스러운 사람을 대변합니다. 저 역시 또디일 수밖에 없구요.”

에 쑥스러운 듯 생리대를 들고 들어오는 남편 덕에 애교 섞인 꾸밈을 늘어놓는 아내 ‘영희’ 등이 그 면면이다. 하지만 정씨 자신은 정작 ‘286’이 아닌 ‘386세대’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자연스레 ‘이팔육’의 상징성이 궁금해진다.

“처음 286컴퓨터가 나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혁명이었죠.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시절의 잘 나가던 컴퓨터는 이제 고물상에 서조차 만나기 힘든 추억이 됐죠. 글썄요, 개인적으로 ‘이팔육’이란 캐릭터에서 조금 덜 다듬어지고 어딘가 부족한, 잘난 척하지 않는 순수함을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의 대표작 <또디>는 지금도 《일간스포츠》에 연재중이다. 9컷의 만화 속에 감동과 반전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담아내자니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날들의 연속이다. 형수의 장례식날 원고 독촉전화를 받았을 땐 고통 속에서도 웃어야 하는 희극인의 비애를 맛보기도 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동네



정연식씨

문학과지성사/B5변형/264면/9800원

비디오가게를 자주 찾는다. 몇 시간이고 매장을 돌며 영화 제목과 시놉시스 등을 훑는데, 비디오를 빌리는 적은 별로 없다. 하지만 며칠씩 걸려 기획한 작품보다 급하게 애드립으로 처리한 작품이 더 인기를 끌 때도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생래적으로 끼를 타고난 사람이다. 디자인을 전공하던 대학시절엔 음악다방 DJ, 통기타 가수로 활약했고, 급기야 1987년에는 대학가요제까지 진출했다. 졸업 후에는 한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고, 어느 날 광고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 부산을 떠나 무작정 상경했다. 하지만 CF감독으로 일했던 그 시절은 그에겐 좌절의 시간이었다. 학연 중심의 미묘한 파벌, 경쟁한 유학파들과 경쟁해야 하는 지방대 출신의 자괴감 등이 그에겐 넘기 힘든 벽으로 다가왔다. 그러다 다시 그림을 그렸고 1999년 《국민일보》 만화공모전에 입선해 만화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때 그렸던 이야기 만화 2편이 강아지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지난해에는 오랜 서울생활을 접고 파주로 이사했다. 지금은 친구가 빌려준 집에서 결혼할 때 “하루 세 번, 식후 삼십분마다 꼭 우기주께” 하고 약속한 부인과 또디의 분신인 강아지 재롱이와 함께 산다. 강아지와 인연은 만화가로 입문할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래서인지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너스레를 떠다. “저는 아내랑 재롱이 덕분에 먹고사는 놈입니다.” — 박옥순 기자